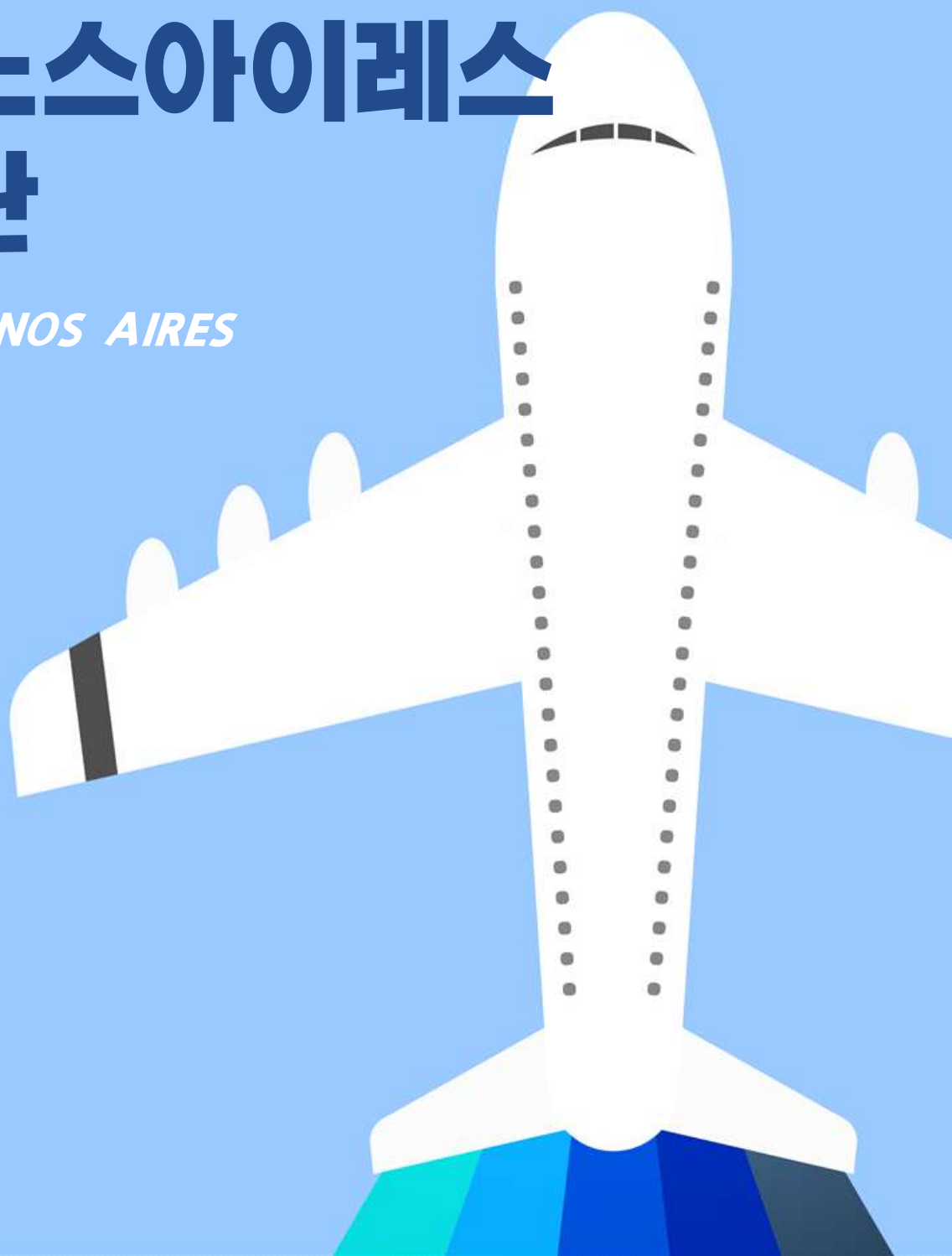


2024 해외출장 가이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KOTRA BUENOS AIRES



목 차

I. 국가개황	01
II. 아르헨티나 경제 및 교역 현황	06
III. 아르헨티나 투자 현황	13
IV. 한국·아르헨티나 교류 현황	18
V. 아르헨티나 주요 인증	24
VI. 무역관 정보 및 체류 안내자료	27

I. 국가 개황

1. 일반현황

□ 국가정보

- 국명 : 아르헨티나 공화국 (República Argentina)
- 국체 : 연방공화국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1회 연임 가능하며 이후 재출마 가능)
 - 현직 대통령 : Javier Gerardo Milei (2023.12.10일 취임)
- 의회 : 상·하 양원제 (상원 72석, 하원 257석)
 - 상원 임기 6년, 하원 임기 4년으로 매 2년마다 상원의 1/3, 하원의 1/2 교체
- 정당 : 자유전진당(La Libertad Avanza-LLA), 조국을 위한 연합(Union por la Patria, 舊 Frente de Todos), 변화를 위한 연합(Juntos por el Cambio-JxC; PRO당, UCR당, CC당 연합 정당), 노동자당 좌파연합(Frente de Izquierda y de los Trabajadores-FIT-U; PTS당, PO당, IS당, MST당 연합 정당) 등
- 인구 : 4,623만 명 (남 49%, 여 51%)
 - * 한국 5,172만 명, 브라질 20,735만 명, 칠레 1,778만 명
- 병력 : 103,500명 (육군 4만 명, 해군 2만 명, 공군 13,500명, 보안군 3만 명)
- 인종 : 백인 97% (유럽계 백인 97%), 기타 3% (인디오 0.5%)
- 수도 :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구 289만 명, 수도권 1,497만 명)
 - 수도 면적 202km² (서울의 1/3)
 - 23개 주정부 및 1개 연방수도로 구성 (각 주는 독자적인 행정권 및 사법권 소유)
- 면적 : 278만km² (세계 8위)
 - 본토 기준 한반도(22.2만km²)의 약 12.5배, 남한(9.9만km²)의 28배
 - 해안선 길이 4.725km
- 기후 : 북부의 아열대 기후에서 남부의 한대 기후까지 분포
 - 4계절이 있고, 한국과 반대(한국이 겨울일 때 아르헨티나는 여름)
- 언어 : 스페인어 (문맹률 2%)
- 종교 : 로마 카톨릭교 (92%), 개신교 (2%), 유대교 (2%), 기타 (4%)
- 화폐 : 페소(Peso)
- 시차 : 서울과 12시간 차이 (-12시간)

□ 주요역사

- 1580년 스페인 식민통치 시작
- 1810.05.25 5월 혁명 (독립운동 시작)
- 1816.07.09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독립 운동지도자 산마르틴(San Martin)장군)
- **1946.06.04 페론 (Juan Domingo Peron) 대통령 취임**
- 1955.09.16 페론 대통령, 쿠데타로 실각·망명
- 1982.04.02 포클랜드(말비나스) 전쟁(6.14 종전)
- **1983.12.10 알폰신(Raul Alfonsin) 대통령(UCR당) 민간정부 출범**
- **1989.07.08 메넴(Menem)대통령 집권 * 초인플레이(2,200%) 영향**
- 1991.04.01 태환정책(미화와 페소화를 1:1로 교환) 실시
- **1995.07.08 메넴(Carlos Saul Menem) 대통령 4년 임기 재취임**
- 1999.12.10 야당연합(Alianza) 데라루아(De la Rúa) 정부 출범
- 2001.12.01 예금인출 제한조치 전격 발동
- 2001.12.20 민중시위로 데라루아(De la Rúa) 대통령 중도 사퇴
- **2001.12.23 의회, 사아(Rodriguez Saa) 임시 대통령 선출**
- 2001.12.24 아르헨 정부, 민간 대외채무 제 1 디폴트 선언
- 2001.12.30 집권당내 정책 이견으로 사아 대통령 사임(7일 천하)
- **2001.12.31 의회, 두알데(Duhalde) 상원의원 대통령 선출**
- 2002.01.07 태환제 폐지(법안 상하양원 통과), 이중환율제 실시 (공식-비공식 환율)
- 2002.02.11 단일 변동환율제 실시(이중환율 중 공정한환율 폐지)
- 2002.11.14 對국제금융기관(세계은행) 채무불이행(제2 디폴트 사태)
- 2002.12.02 요구불 예금 현금인출 제한조치(Corralito) 해제
- 2003.01.16 초단기 IMF 협상 타결(의향서 교환) * 3.24 이사회 통과
- **2003.05.25 페론당 키르츠네르 대통령 취임**
- 2005.03.01 디폴트 국채 교환거래 성공으로 탈 디폴트 공식 선언
- 2006.01.03 아르헨티나 IMF 채무 전액 조기 상환 (U\$ 95억 3000만)
- **2007.12.18 페론당 크리스티나 대통령 취임**
- 2008.05.15 페론당 대통령 남편 키르츠네르 페론당 대표 취임
- 2009.06.28 총선 실시, 페론당 실질적 패배(하원의석 17석 감소)
- **2011.10.23 크리스티나 대통령 대선 승리로 연임**

- 2012.04.16 아르헨티나 최대 석유회사 YPF(스페인계)에 대한 국유화 선언
- 2013.10.27 총선 실시, 집권당 패배
- 2015.10.25 1차 대선투표로 FPV(現 FdT)의 Scioli(중도좌파)와 Cambiemos의 Macri(중도우파)가 2차 대선 투표 후보자로 결정
- 2015.11.22 2차 대선투표 Macri 후보가 51.4% 득표율로 여당의 Scioli 후보와 2.8%라는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
- **2015.12.10 Mauricio Macri 대통령 취임**
- 2015.12.16 외환규제 철폐, 폐소 40% 평가절하
- 2015.12.23 사전수입승인허가제(DJAI) 철폐/종합수입모니터링 제도 도입 (SIMI)
- 2016.08 온라인 쇼핑규제 완화:1회 1천달러 한도 구매 횟수 완화, D2D배달 허용
- 2017.02.21 IT 기기(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수입관세(35%) 폐지
- 2017.02 MERCOSUR, EU · 한국 · 캐나다 · 인도 · 일본 · 중국 · 멕시코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 2017.08.19 MERCOSUR-이집트 FTA 발효
- 2017.12.10 WTO 각료회의
- 2018.03.22 IDB (미주 개발은행) 회의
- 2018.10.06 2018 하계 청소년 올림픽
- 2018.11.30 G20 회의
- 2019.08.11 예비 선거 (집권당 패배/중도좌파의 승리)
- 2019.10.27 대선 투표
- **2019.12.10 Alberto Fernandez 대통령 취임**
- 2020.11.08 Covid 19 락다운 해제
- 2021.09.21 아르헨티나 연방의회 예비선거(PASO) 진행
- 2021.11.14 아르헨티나 연방의회 선거 (집권당 패배/중도우파의 승리)
- **2023.12.10. Javier Milei 대통령 취임**

2. 시장특성

□ 중남미 3위 경제대국, 스페인어 권 남미경제의 중심축

- 중남미에서 GDP·교역 면에서 멕시코·브라질에 이어 3위 기록
 - 인구 약 4,500만 명으로 비교적 큰 자체 시장 형성
- '24년 1인당 GDP(PPP 구매력 기준)는 26,399달러로 전망
 - 26,765달러였던 '23년에 비해 약 -1.4% 감소하며, 중남미에서 칠레에 이어 2위에 위치
 -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 이후 증가추세 유지할 것으로 보임 ('29년 예상치 33,117달러)

< 주요 중남미국가 1인당 GDP(PPP) 현황 >

(단위: US\$)

순위	국 가	2020	2021	2022	2023	2024*
1	칠레	23,192.99	26,703.62	28,951.24	29,872.85	31,005.03
2	아르헨티나	20,754.38	23,805.81	26,498.41	26,765.73	26,389.67
3	멕시코	19,407.67	21,333.68	23,558.95	24,980.29	25,962.87
4	브라질	15,772.99	17,192.68	18,861.05	20,000.59	20,809.09
5	콜롬비아	14,386.64	16,450.34	18,687.07	19,282.54	19,769.9

자료: IMF (*는 전망치)

□ 온라인 유통망의 발달

-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오프라인 유통망이 강세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온라인 유통망이 급격히 성장하며 소비패턴의 변화를 야기
 - Desktop을 사용한 구매보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 구매가 증가추세 유지
 - 또한, SNS를 이용해 구매하는 소비자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기업의 50%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판매액의 49%가 온라인 판매로 집계
-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업체인 Mercado Libre는 중남미 18개 국가에 진출, 중남미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

□ 풍부한 광물·에너지·식량자원 보유국가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국가인 아르헨티나는 셰일가스 매장량이 세계 2위, 리튬 세계 3위, 셰일오일 세계 4위를 차지
 - 세계 각국이 리튬 광산 개발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한국 기업 중 포스코가 Salta주 Hombre Muerto 지역에서 생산 프로젝트 시작
- 아르헨티나 수출 약 28%는 농축산물 및 광산물이며, 농산물 가공품이 약 39% 차지

□ 경직적인 노동시장

- 전통적인 강성노조 및 노동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노동법은 아르헨티나 투자 시 최대 걸림돌로 작용
 - 아르헨티나 경제 파탄의 주요 원인을 포퓰리즘, 강성노조, 부정부패로 꼽을 만큼 노동권이 강한 나라
 - 경직적인 노동법으로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며, 노무 소송 발생 시 법원은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법규를 해석하여 고용주의 해고비용이 매우 높음
 - '23년 12월 취임한 현 대통령은 친시장 정책을 펼쳐 노동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아직 양 의원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

□ 내수지향적 수입대체공업 정책

- 아르헨티나 제조업은 중간재 산업인 중화학 공업 기반 없이 수입대체 전략에 입각한 경공업 위주로 발달
 - 전임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으로 생산에 필요한 생산재(원자재·자본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비용 상승 압박 가중
 - 높은 생산비용의 비효율적인 구조로 수출 경쟁력은 떨어져 내수시장만을 타깃으로 생산 중이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인해 산업생산은 3년 동안 마이너스성장을 기록
 - 아르헨티나 수입 중 자본재 및 그 부품인 중간재 비중은 71% 임

Ⅱ. 아르헨티나 경제 및 교역 현황

1. 최근 경제 개황

<주요경제 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백만 명	43.9	44.4	44.8	45.2	45.6	45.5	45.8	46.1
명목 GDP	십억 달러	642.5	523.9	447.0	385.9	486.9	630.1	639.3	667.1
1인당 명목GDP	달러	14,588	11,667	10,604	8,571	10,658	13,845	13,966	14,484
실질성장률	%	2.8	-2.6	-2.0	-9.9	10.4	5.7	-1.6	-3.0
실업률	%	8.4	9.2	9.8	11.6	8.8	7.1	6.1	8.8
소비자물가상승률	%	24.8	47.6	53.8	36.1	50.9	72.5	133.5	248.9
재정수지(GDP대비)	%	-5.9	-4.9	-3.8	-8.4	-3.6	-4.5	-6.0	-1.2
총수출	백만 달러	58,662	61,801	65,162	54,946	77,987	90,021	81,358	81,200
(對韓 수출)	"	612	406	423	332	391	2,572	1,628	329
총수입	"	64,109	62,544	46,928	40,315	59,291	80,994	72,506	62,900
(對韓 수입)	"	836	536	225	894	1,824	529	445	107
무역수지	백만 달러	-5,447	-743	18,234	14,631	18,696	9,027	8,852	18,300
경상수지	"	-31,151	-27,084	-3,493	3,121	6,708	-6,430	-21,500	1,00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6.56	28.09	50.23	70.51	94.99	130.62	296.3	954.2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1,155	1,726	1,523	1,292	1,363	2,323	-	-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11,857	11,717	6,649	4,723	6,782	15,087	-	-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對韓 수출입 '24년 자료 4월 기준

자료: EIU ('24.05.01. 기준 전망), IMF, UNCTAD('24.05 최신자료), KITA

□ 아르헨티나 경제 평가

- (2023년 경제 마이너스 성장) '20년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며 -11%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아르헨티나는 '21년, '22년 플러스 성장 전환에 성공했으나 '23년에는 -1.6% 역성장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2년 상반기까지 '23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제시했으나, 아르헨티나 내 정치적인 이슈(정부 주요 인사 교체 및 '23년 대선 등) 및 국제 경기 침체로 인해 전망치를 0%로 하향 조정
 -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재조정하며 아르헨티나 경기침체를 전망했으나, 광업 및 채석업의 호조로 -1.6% 마이너스 성장에 그침

- '22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5.7%로 2년 연속 플러스 성장하였으나, '23년부터 경기 하락세가 시작되어 기술적 침체(Technical Recession)기에 진입, '25년에 이르러서야 아르헨티나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경제 전망

- 밀레이(Milei)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자유주의 및 개방 시장경제 기조하에 과감한 경제·사회 개혁 조치(긴급정부령 및 옴니버스 법안 등) 추진 중
 - 밀레이(Milei) 대통령은 극단적인 통화정책(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폐쇄, 경제 달러화 등)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정권 초기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기반으로 폐소화 평가절하(54%), 정부부처 축소, 보조금 삭감, 긴축 재정 등 고강도 경제 개혁 조치를 시행 중
 - 이에 따라, 거시경제지표(재정수지, 외환보유고, 환율 등)는 기대보다 빠르게 개선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으나, 2024년은 밀레이 신정부의 경제개혁을 위한 충격요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시점으로 물가, 실업률 등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태를 나타낼 전망 (인플레이션 259.6%, 실업률 10.1%)
 - 신정부 개혁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4년 하반기 이후로 경제개혁 성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이후부터는 아르헨티나 경제가 급속히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
- 2023~2028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연평균 2.2% 성장 예상
 - 현재 진행 중인 원자재 가격상승은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농업, 에너지, 광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반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취약한 국가 재정, 경제 통제 정책, 장기 자금 조달 애로 및 기업 활동 규제 등은 아르헨티나의 성장 잠재력 하락 요소로 작용
 - 또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극/빈곤층 확대로 인해 치안·안전 문제가 악화되며 사회불안이 가중될 전망

<아르헨티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경제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실질 GDP 성장률	-1.6	-3.0	4.9	4.7	4.4	3.5
실업률(평균)	6.1	8.8	8.2	7.2	6.8	6.2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133.5	248.9	58.7	30.3	18.1	13.1
금리(평균)	95.1	72.9	48.8	37.5	25.5	16.1
경상수지(GDP대비)	-3.4	0.1	-0.5	-1.3	-1.9	-2.2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2028년은 전망치

자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4. 5. 기준 전망)

2. 아르헨티나 교역 동향

□ 수출입 주요 이슈

- '23년, 국제 경기 악화 및 외환규제 등으로 아르헨티나 교역량 감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수입량 감소, 특히 내수시장 악화와 외환규제에 따른 원활한 수입 진행 불가로 인해 '19~'20년 수입량 감소
 - '21년에는 점진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며 예년 수입량을 회복했으며, '22년도 전년 대비 수출액 15.4% 증가, 수입액 36.6% 증가
 - 아르헨티나는 기본적으로 산업재, 자본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지 경기가 활성화되면 수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 그러나, 현지 외환규제와 폐소화 약세 영향으로 '23년 수입액은 -10.4% 감소, 국제 경기 악화에 따라 수출액은 -9.6% 감소
- '24년, 수입규제 완화에 따른 점진적인 수입량 회복
 - 기존 아르헨티나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및 외환규제, 수입규제 강화 정책에 따라 수입량 감소
 - 현 밀레이 정부는 친시장 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입 정상화를 선언, 점진적으로 수입량 회복할 것으로 전망

<아르헨티나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단위: 10억 달러, GDP 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수출액	90.0	66.8	81.2	85.9	86.2
총 수입액	81.0	69.8	62.8	69.2	73
무역수지	9.0	9.8	9.0	12.2	12.2
경상수지	-6.4	-21.5	1.0	-3.6	-13.3
경상수지(%)	-1.0	-3.4	0.1	-0.5	-1.3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2026년은 전망치

자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4. 5. 1. 기준 전망)

□ 국가별 현황

- 주요 무역 대상국, ①브라질 ②중국 ③미국 ④인도 ⑤칠레 등임
- (수출) 아르헨티나는 농축산물 및 가공품이 수출의 60% 이상 차지
 - 이에 따라 기후에 따른 농축산업 생산량 및 국제가격 변동에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최근 국제 곡물 시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며, 아르헨티나 수출 증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수입)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브라질, 미국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 차지
 - 대부분의 공산품, 중간재 및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음

<아르헨티나 10대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국가	2022		국가	2023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비중
1	브라질	12,633	7.43	브라질	11,854	-6.17	17.77
2	중국	7,924	28.76	미국	5,562	-15.49	8.34

3	미국	6,581	33.93	중국	5,169	-34.77	7.75
4	칠레	4,927	18.02	칠레	4,944	0.34	7.41
5	인도	4,542	5.80	페루	2,539	4.12	3.81
6	네덜란드	3,563	19.42	인도	2,450	-46.06	3.67
7	베트남	3,222	0.06	베트남	2,093	-35.05	3.14
8	페루	2,438	22.20	우루과이	1,658	7.50	2.49
9	인도네시아	2,104	12.98	네덜란드	1,556	-56.33	2.33
10	한국	2,017	17.30	스페인	1,436	-17.05	2.15
.
15	.	.	.	한국	1,185	-41.28	1.78
전체		88,268	13.40	전체	66,701	-24.43	100

자료: GTA (Global Trade Atlas)

<아르헨티나 10대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국가	2022		국가	2023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비중
1	중국	17,501	29.40	브라질	15,979	8.24	23.46
2	브라질	15,978	28.94	중국	17,502	-17.28	19.64
3	미국	10,263	75.01	미국	10,264	-16.52	11.62
4	독일	2,719	7.61	파라과이	1,959	99.69	5.31
5	볼리비아	2,220	110.47	독일	2,719	2.36	3.78
6	파라과이	1,958	-32.79	이탈리아	1,678	7.95	2.46
7	인도	1,849	32.69	태국	1,813	-0.78	2.44
8	태국	1,813	16.73	멕시코	1,711	-8.71	2.12
9	멕시코	1,710	21.91	인도	1,849	-22.55	1.94
10	이탈리아	1,677	27.89	베트남	1,240	12.39	1.89
.
18	한국	729	12.46	한국	729	-8.32	0.91
전체		81,522	29.02	전체	73,714	-9.58	100

자료 : GTA (Global Trade Atlas)

□ 품목별 수출입

-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입 품목, 1차 산업 제품(대두, 밀 등 곡물류), 중간재, 자본재, 에너지 등
 - (주요 수출품) 곡물(12.1%), 사료(9.39%), 동물성식유지(7.52%) 차지
 - (주요 수입품) 보일러기계류(15.16%), 일반차량(11.12%), 전기기기(11.02%) 차지
- (수출)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1차 산업 관련 제품
 - 농산물, 광물이 수출 총액의 28%, 농산물 가공품이 39%로 총 수출의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
- (수입)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브라질, 중국, 미국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 차지
 - 대부분의 공산품, 중간재 및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기때문에 구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음

<아르헨티나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20		2021		2022		2023	
	HS 코드	설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99	Nesoi*	7,473	13.62	10,890	13.99	13,032	14.76	9,933	14.89
2	10	곡물	8,524	15.53	12,789	16.43	14,440	16.36	8,071	12.10
3	87	일반차량	3,480	6.34	6,147	7.90	7,468	8.46	7,800	11.69
4	23	조제사료	6,285	11.45	9,169	11.78	9,668	10.95	6,264	9.39
5	27	광물성연료에너지	2,050	3.74	3,727	4.79	5,776	6.54	6,110	9.16
6	15	동식물성유지	4,308	7.85	7,285	9.36	7,755	8.79	5,016	7.52
7	02	육과식용설육	3,252	5.93	3,354	4.31	4,022	4.56	3,108	4.66

8	12	채유용종 자·인삼	3,346	6.10	3,722	4.78	4,220	4.78	2,061	3.09
9	71	귀석·반귀 석, 귀금속	1,781	3.24	1,876	2.41	1,827	2.07	2,040	3.06
10	03	어패류	1,652	3.01	1,917	2.46	1,738	1.97	1,688	2.53

자료 : GTA (Global Trade Atlas; 자료 검색일: 2024.05.; 순위는 2023년 기준)

주: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dicated

<아르헨티나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20		2021		2022		2023	
	HS 코드	설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84	보일러기 계류	6,375	15.0 5	9,537	15.0 9	11,631	14.2 7	11,176	15.1 6
2	87	일반차량	4,614	10.8 9	6,428	10.1 7	7,888	9.68	8,199	11.1 2
3	85	전 기 기 기 TV·VTR	4,770	11.2 6	6,638	10.5 1	8,585	10.5 3	8,125	11.0 2
4	27	광물성연 료에너지	2,566	6.06	5,803	9.18	12,783	15.6 8	7,763	10.5 3
5	12	채유용종 자·인삼	2,069	4.88	2,726	4.31	2,234	2.74	5,729	7.77
6	29	유기화합 물	2,540	6.00	3,337	5.28	4,447	5.46	3,423	4.64
7	39	플라스틱 과 그 제 품	2,109	4.98	3,039	4.81	3,662	4.49	3,125	4.24
8	30	의료용품	2,144	5.06	3,294	5.21	3,182	3.90	2,601	3.53
9	90	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1,183	2.79	1,614	2.56	1,869	2.29	1,860	2.52
10	72	철강	649	1.53	1,837	2.91	1,910	2.34	1,697	2.30

자료 : GTA (Global Trade Atlas; 자료 검색일: 2024.05.; 순위는 2023년 기준)

Ⅲ. 아르헨티나 투자 현황

1. 투자유치 동향

□ 투자진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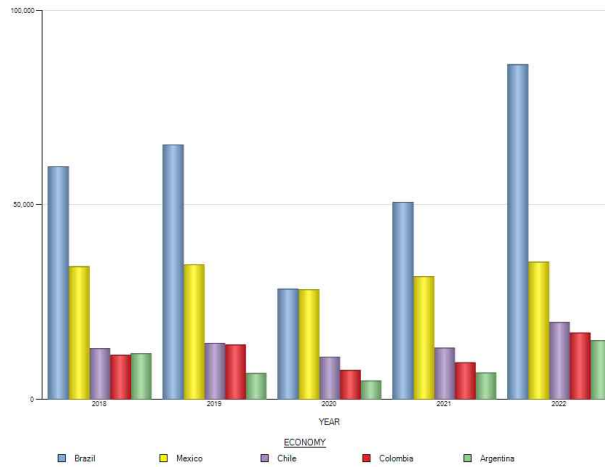
- 거대한 공동시장 : 2005년 남미공동시장(MERCOSUR/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출범, 2012년 베네수엘라* 정회원국으로 추가 가입
 - * 현재 베네수엘라는 회원자격 정지된 상태
- 내외국기업 무차별 대우 (외국인 투자진출 업종 완전 개방)
 - 외국인 투자 시 모든 업종에 국내 자본 기업과 차별 없이 대우
 - 또한, 풍부한 1차산업 자원(농산물, 광물)과 인력 보유
- 페론주의에 입각한 친 노동자, 친 노조 노동법과 외환 거래 경직성으로 현지 법인설립 투자에 불리한 요건
 - 전통적인 강성노조에 기반한 노동시장과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및 중앙은행의 외환거래 제재 심화는 외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
 - 또한, 현재 과실송금이 불가하여 수익금을 현지에 재투자하거나 과실송금이 가능할 때까지 실효성 있는 운용이 필요한 상태

□ 외국의 아르헨티나 투자(FDI) 현황

- (현황)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 기준,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5번째로 FDI 유입이 많은 나라
 -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 기준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FDI 유입이 많은 나라였으나 2021년 5위로 하락함.
 - 전 마크리 대통령 취임 이후 2016년 외국인 투자 유입액은 약 32.6억 달러로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하였으나, 2017년, 2018년에는 각 115억 달러, 121억 달러에 달했음.
 - 그러나 아르헨티나 경기 상황이 악화되며 기존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과 FDI 유입액이 유지되었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40.1억 달러까지 내려갔으나 2021년 경기회복에 더불어 약 62.5% 증가함

< 중남미 주요국가 FDI 유입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	브라질	59,802	71,989	28,318	50,367	86,050
2	멕시코	34,746	32,921	27,934	31,621	35,292
3	콜롬비아	11,535	14,493	9,637	12,719	17,048
4	칠레	7,021	11,437	7,459	9,402	19,786
5	아르헨티나	11,873	6,244	4,019	6,534	15,087

주 : 순위는 2022년 기준

자료 : UNCTAD ('24.05 기준 최신자료)

- (연도별) 아르헨티나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임 마크리 대통령 집권기 중 약 12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현 알베르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며 급감 추세 - 팬데믹, 경기악화, 노조분쟁, 폐소화 가치 하락, 치안문제 등이 외국인 투자 저해

< 아르헨티나 FDI 현황 >

(단위: US\$백만, %)

FDI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FDI 유입	11,517	11,873	6,244	4,019	6,534	15,087
FDI 잔액	80,700	72,589	70,458	84,319	98,928	116,710
FDI 잔액/GDP	12.56	14.02	15.82	22.01	20.50	18.42

자료: UNCTAD ('24.05 기준 최신자료)

□ 주요국 투자 현황

1. 중국

○ 중국 투자 현황

- 2022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면담을 가진 이후 중국의 아르헨티나의 투자진출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짐
- 중국 민간기업도 존재하나 대부분 국가소유 기업이며, 광업, 관광, 농업, 전력 및 원자력 에너지, 건강/전자상거래 부분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 특히, Zarate 지역의 발전소 건설 등 특정 프로젝트로 현지 기업 혹은 정부와 연계하여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음
-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중국이 모든 자금을 부담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 진출기업

- 아시아상공인협회 측에서 집계한 중국계 아르헨티나 투자 진출기업은 총 81개사

○ 주요 진출기업 현황

- ① JD.com : 중국의 최대 소매유통망으로 5억 5,000만 이상의 유저를 보유한 기업. 아르헨티나 제품 유통을 늘릴 것으로 MOU 체결,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소고기, 와인, 해산물 중국으로 공격적인 수출 예정임.
- ② Tong Ren Tang : 한의학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중국 내 2,000개 이상의 로컬 유통망을 보유한 기업.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하는 우황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품질검사 플랫폼”에 투자 예정임.
- ③ Sinograin : 대두(300만 Tn), 대두유(3억 Tn) 중국 수출용으로 투자 예정
- ④ Chery : 전기자동차 생산시설 투자 예정
- ⑤ Gotion High Tech : 리튬 배터리 생산 기업으로 아르헨티나에 전기버스 생산시설 및 리튬생산(채굴 및 배터리생산)시설에 투자 예정
- ⑥ Zijin Minig : Catamarca Fiambala 지역 Tres Quebradas 리튬생산 프로젝트 투자 예정(3억 1,900만 달러)
- ⑦ Tshingshan : Salta 주에 리튬생산 투자 예정 (3억 7,000만 달러)

- ⑧ Jiangxi Nuclear Power CO : Rio Negro 주 INVAP(아르헨티나 컨설팅 기업)과 전략적 계약 관계로 의료용 원자로 개발 진행 예정(그린수소 에너지 활용 예정)
- ⑨ Banco popular China-Banco Central Argentina : 스왑 체결 및 진행
- ⑩ BAI(Banco Asiatico de Inversion e Infraestructura) : 아르헨티나 Catamarca 지역과 칠레의 Atacama 지역을 잇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파이낸싱 제공
- ⑪ Xiaomi : Tierra del Fuero 지역에 핸드폰 생산공장 설립 및 소매유통 진행 예정
- ⑫ Great Wall : 아르헨티나 기업 Spacesur라는 곳과 기술 및 상업 보완 계약 체결, 중-아 인공위성 개발 및 수출 진행 예정
- ⑬ Yulin : 중-아 축구 아카데미로 아르헨티나 설립으로 투자 예정
- ⑭ Trip.com : 아르헨티나 관광부와 협약 완료, 아르헨티나 중국 관광객유치를 위한 투자 진행 예정

2. 일본

○ 일본 투자 현황

- 아시아상공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아르헨티나 신규 투자는 전무
- 대부분 자동차, 오토바이등 관련 제조를 위해 진출한 기업

○ 진출기업

- 재아일본대사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 기업은 약 70개사임
- 2019년 기준 102개사가 존재하였으나, 아르헨티나 경기상황 및 코로나의 영향으로 철수한 것으로 집계

○ 주요 진출기업 현황

- ① 자동차/오토바이/자동차부품 제조기업 : Toyota, Honda, Yamaha, Bridgestone, Nissan, Hino
- ② 트레이딩/프로젝트 참여기업 : Mitsubishi Corporation, Mitsui, Sumitomo corporation, Toyota Tsusho(Olaoz 후후이 지역 리튬개발)
- ③ 일반 제조 : NEC, Daikin, Hitachi, Fujitec
- ④ 전자제품 제조 : Sony, Panasonic, Pioneer

3. 미국

○ 미국 투자현황

- 아르헨티나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FDI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2018년 기준; 재미아르헨티나대사관 최신자료)

○ 진출기업

- 약 400개의 미국자본 다국적 기업이 아르헨티나에 진출해있는 것으로 집계
- 그러나 아르헨티나 경제상황이 지속 악화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연쇄적인 철수가 일어났으며, 미국 대기업인 Brightstar도 20년 10월 아르헨티나 사업을 포기(생산업 포기, 서비스업 집중)
- Walmart도 22년부로 아르헨티나 사업 철수 (20년부터 인수기업 물색 진행, 현지 유통망인 Changomas과 협의한 것으로 발표), 원인은 현지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소비감소, 불안정한 Financial 등으로 발표함

○ 주요 진출기업 현황

- 제조 : 3M, ABBOTT, P&G, IFF, NCR, Unilever, Ford
- 오일&가스 : Orazul Energy, Exxon Mobil, AES
- 커뮤니케이션, 테크, 파이낸스, 컨설팅: Accenture, Visa, American Express, J.P. Morgan, IBM, ManpowerGroup, Metlife

IV. 한국·아르헨티나 교류 현황

1. 한국·아르헨티나 무역 동향

□ 한-아르헨티나 교역 현황

- 2019년부터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 한-아르헨티나 교역구조는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전형적인 무역형태를 띄고 있음
 - '23년 한국은 4.4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출하고, 16.2억 달러 규모의 물품을 수입, -11.8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 '21년 양국 간 교역규모는 22억 달러, '22년은 31억 달러로 '18년 최저 수준인 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교역 규모 지속 증가하였으나, '23년 아르헨티나의 수입 저하 및 수출악재 등으로 인해 교역량 20억 달러 규모로 감소
 - '18년의 경우, 급격한 폐소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아르헨티나 對韓 수입 감소 및 가뭄으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로 교역량이 대폭 감소
 -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 건정성 확보 및 긴축정책 시행,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호전되기는 어려운 여건

<한-아르헨티나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836	536	341	332	391	529	445
수입	612	406	865	894	1,824	2,572	1,628
한국 흑자 규모	224	130	-524	-562	-1,433	-2,043	-1,183
교역 총액	1,448	942	1,206	1,226	2,215	3,101	2,073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2023.9.)

- 우리나라는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아연도강판, 운반하역기, 건설중장비 등 공산품 (자본재, 중간재)을 수출하고, 사료·식물성유지·은 등 원자재를 수입하는 구조를 유지

- 아르헨티나 수입규제와 자국 산업 보호정책으로 완제품보다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혹은 현지생산이 불가능한 기술집약적 제품 위주로 수출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은 농산물 및 광물 등의 1차 상품이 대부분이며, 전체 수입액 중 사료 비중이 70%로 매우 높음

<2023년 한-아르헨티나 주요 교역 품목>

수출품목	금액 (천 달러)	비중(%)	수입품목	금액 (천 달러)	비중(%)
자동차부품	69,375	13.12	사료	1,898,933	73.84
합성수지	51,422	9.72	식물성유지	272,715	10.60
경유	45,721	8.65	박류	115,398	4.48
항공기	29,502	5.58	기타정밀화학원료	98,289	3.82
윤활유	24,397	4.61	은	35,824	1.39
건설중장비	20,087	3.80	새우	27,932	1.08
기타정밀화학원료	17,237	3.26	의약품	26,280	1.02
아연도강판	17,094	3.23	오징어	17,927	0.69
의약품	15,361	2.90	기타어류	14,868	0.57
기타석유화학제품	11,854	2.24	아연광	11,928	0.46
총액	528,690	100	총액	2,571,714	100

주: MTI 4단위 기준 품목 분류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2. 한국·아르헨티나 수입규제 동향

□ 수입규제

○ 현황 요약

- 2023년 상반기 기준 아르헨티나의 對韓 수입규제는 1건임
- 기존 화학제품 관련 반덤핑규제가 있었으나, 별다른 일몰조사 없이 규제 종료처리됨

< 주재국의 對韓 수입규제 내용 >

연번	품목분류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1	전기/전자	삼성 유입 변압기	8504.23.00	반덤핑	'13.1.3	'14.7.2 <재조사 종료> '19.11.22	- 대상국가: 중국, 한국 *반덤핑 관세: 한국(52%)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17.7.17~ '24.11.22

자료 : WTO 통계 및 현지 관보 등을 종합하여 KOTRA 관할 무역관 정리

□ 수입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지 산업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확대

○ 현지생산이 있는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허가제(LNA) 시행

- 2015년 12월 22일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 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전격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관리 제도인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을 전격 시행함
 - * 사전수입신고제도(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 승인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세계 유일무이의 수입규제 정책으로 유명하며 일본, 미국 및 EU의 WTO 제소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폐지하도록 강요받았고, 12월 22일 신정부에 의해 폐지됨
 -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
- SIMI는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며, DJAI와 같이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AFIP)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DJAI와 달리 신청절차가 매우 단순한 것이 특징

○ 기존 무차별적인 수입규제 대신, 현지생산이 있는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허가제(LNA)를 시행하며, SIMI 시스템을 통해 관리

- 약 1,500개 HS코드가 LNA 대상이며,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치고, 수입 수량 및 금액에 제한을 두어 규제함
 - * LNA 주요 품목은 섬유원사, 원단, 의류), 가전제품, 장난감, 제화, 제지, 농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일부), 오토바이, 자전거, 가죽제품, 카펫, 철강철사, 튜브, 파이프, 못), 유리제품, 모터, 가구 등에 집중

- LNA 품목인 아닌 경우는 SIMI 신청 후 약 48~72시간 안에 보통 승인이 나며, LNA 규제 품목인 경우 수입승인은 최대 60일까지 소요(근무일 기준)
 - SIMI 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은 제품은 180일간의 통관기간이 주어짐
 - 통관시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실 수입제품을 검사하여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수입이 불가 (FOB 단가 7% 이상 및 이하, 수량 5% 이상 차이)
- (문제점) HS코드의 포괄성 때문에 현지에 생산이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에 걸려 승인이 지연되고, 사전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 추가비용 상승 압박
- 또한 일부 품목은 현지 소수업체에 의해 생산되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로 수입제품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호무역주의 성향 강화) 현 좌파정부의 경우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뚜렷하여 현지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를 심화하는 추세
-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등 현지에서 조립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완제품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3. 한국·아르헨티나 투자 동향

□ 한국의 對 아르헨티나 투자 현황

- (연도별) 한국의 아르헨티나 투자는 자원 확보, 역내시장용 대기업 진출 등 2023년 기준 누적 12.5억 달러 수준
- 對아르헨티나 투자는 2017년까지 누적기준 1.9억불 수준이었으나, 2018년 리튬 광산 인수 이후 5.9억불로 증가, 2022년도 상승한 8.8억불, 지속적으로 투자 진행하여 12.5억불 달성
- * (리튬 광산) 포스코, 갤럭시 리소스(호주)社의 아르헨티나 광산 인수(2.8억불) 및 주변 광구 추가 확보('19.10)

< 한국기업의 대 아르헨티나 투자현황 >

(단위: US\$백만)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신고금액	47	20	3	277.4	334
신고건수	7	3	2	2	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업종별) 최근 한국기업의 아르헨티나 투자 업종은 광업, 제조업에 집중

< 한국기업의 대 아르헨티나 업종별 투자현황 >

(단위 : 건, 개, U\$ 백만)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56	21	55	88	29
광업	53	13	1,173	230	1,020
제조업	50	21	148	59	54
건설업	7	3	6	23	4
도매 및 소매업	17	6	165	20	149
운수 및 창고업	1	0	0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1	1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	4	3	9	2
합계	198	69	1,551	430	1,25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누적 데이터

○ (진출기업) 제조법인은 없으며 판매법인 위주로 진출

- 아르헨티나의 큰 경기 변동성으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은 미미한 상황이며, 기존 진출기업이었던 LG, 세라젬은 코로나 이후 철수 진행
- 그러나 최근 포스코가 진행하고 있는 리튬 개발 프로젝트로 여러 하청업체들이 현지 진출을 시작하며 현지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아르헨티나 진출 한국기업 현황>

구분	진출업체	진출년도	비고
전자	삼성전자	1996	전자제품
	LG 전자	2000	전자제품
상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1977	무역, 자원, M&A
서비스업	한국선급	2007	등록선박검사, 해운관련 정부 업무 연락, 신규등록 유치
	LX판토스	2017	물류
	제일기획	2018	광고대행
수산업	한성기업	1985	원양산업
광업/ 제조	포스코 아르헨티나	2015	리튬
	포스코 건설	2022	플랜트 협력
	삼진공작 주식회사	2022	(포스코 협력업체)
	삼진전기	2022	(포스코 협력업체)
	(주)코원이엔씨	2022	(포스코 협력업체)
	현대중공업	2022	(포스코 협력업체)
	세일엔지니어링	2022	(포스코 협력업체)
	한영엔지니어링	2016	특수용기 제작(포스코 협력업체)

자료: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 (투자 성공사례) 포스코 리튬 산업

- 포스코의 경우 살타(Salta)주 옴브레 무에르토(Hombre Muerto)지역에서 염 호기반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해 공장 건설 중
- 추정 매장량은 약 1,350만 톤으로 2024년 상반기 공장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2만 5천톤*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
 - * 수산화리튬 2만 5천톤은 전기자동차 60만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 가능
- '24년 상반기 중 1단계 생산 인프라 시공 완료 및 수산화리튬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며, '25년 생산을 위한 2단계 후속 투자 프로젝트 추진 중

V. 아르헨티나 주요 인증

1. 아르헨티나 주요 인증기관 및 분야

□ 표준인증협회(IRAM)

- 전기·전자, 화학, 가스관련 제품, 완구, 기계·금속제품 등에 대하여 IRAM 표준에 부합할 경우 IRAM 인증마크를 부여
 - IRAM 인증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칠레, 페루,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 효력을 발휘
- IRAM 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는 협정을 맺고있어 기존에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에 등록돼 있을 경우에는 라이선스 증빙서류와 함께 IRAM에 제출함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만약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아르헨티나 업체가 샘플을 수입 및 IRAM의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 (근무일 기준 약 120일 정도소요,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인증을 받기위한 소요기간은 약 2개월 가량
- IRAM 인증 분야

구분	분야	내용	비고
소비재 제품인증	화학제품	PVC 액세서리, 볼펜, 소화기 충전물질, 반사지, 브레이크 패드 및 용액, PE/PRFV 튜브 안전유리 등 안정성 인증	강제사항
	완구	완구 안정성 인증	"
	농임업 제품	목재, 복사지 등 종이제품 등	"
농식품 IRAM-Fundacion ArgenINTA (공동 인증)	농식품 인증	햄버거, 달걀, 치즈, 닭고기, 차	선택사항
	BPM	제조우수사례 인증	"
	BPA	농업우수사례 인증	"
	PI	친환경적 농업에 대한 인증	"
	HACCP	식품 분야에서 위험과 관리의 임계점 관리 제도에 대한 인증	"
	BPM S.A.	식품부문제조우수사례 인증	"
	P.O.	유기능 제품인증	"
전기·전자		KTL을 통해 신청 가능 (전기·전자 제품 인증방법 참조)	"
기계·금속		견인장치, 기중기 등 안전, IRAM-INTI 공동 인증	"

□ 산업기술청(INTI)

- 2001년 설립된 정부기관(설립근거: Consejo Directivo No. 32/2001)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제품에 대해 안전·품질 인증
- INTI 인증분야

분 야	업무내용
완구	완구 안전성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Resolución) 163/2005
용기 (envase)	뚜껑 등의 재질이 위험한지 등 용기에 대한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730/1998
시멘트	건축용 시멘트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130/1992, 240/1992
전기제품	저압에서 사용되는 전기제품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92/1998
신발	신발 각 재료 성분, 제조업체, 상표, 모델에 대한 라벨링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508/1999
포장지	포장용 종이에 대한 라벨링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653/1999
가스장비	천연가스, LPG 등 모든 유형의 가스기기 및 액세서리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아르헨티나 가스공사(Enargas) 표준
개인보호장비	개인보호용도의 장비, 수단 및 부품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896/1999
자동차부품	안전관련 자동차부품 및 요소에 대한 형식승인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91/2001
수입자동차	수입자동차 기술서류에 대한 검사 검사기준 및 근거: 결정문 64/2001
우박방지용 그물	농작물 보호를 위한 설치조건 및 품질 등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법률 25174/99, 시행령 1552/2001
식품	모든 식품의 품질 및 가공단계에 대한 인증 강제 인증은 아니며 자발적으로 인증 받음.
에너지 라벨링	전기제품이 정해진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319/1999
자전거	자전거 판매를 위한 안전 인증 유아용 자전거 안전기준 규정 및 심사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220/2003, 91/2004
라텍스 페인트	라텍스(latex) 페인트의 납 함유량 검사 및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1088/2004
철강	콘크리트 철근 또는 건축용 철 구조물 사용 시 최저 안전기준검사 및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404/1999
라이터	라이터 안전성 검사 및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77/2004
자전거용튜브, 타이어	튜브 및 타이어에 대한 최저 안전기준 검사 및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153/2005
기계·장비	플라스틱·고무 사출기계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97/2006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및 부품에 대한 안전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897/1999
기타 품목	자발적으로 인증 신청 가능

❑ 식약청(ANMAT)

- 아르헨티나에서 의료기기·의약품·식품을 수입하려면 아르헨티나 식약청 (ANMAT)의 인증을 받아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 함
- 법령 17/06 호에 의료기기·의약품·식품의 최초 수입 시 ANMAT에 카탈로그, 원산지 증명서, 품질증명서, 생산절차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상품 등록 고유번호가 발급됨
- 인증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180일(6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같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상품 등록 고유번호만 제출

VI. 무역관 정보 및 체류 안내자료

1. 무역관 · 대사관 정보 및 항공사 연락처

☐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 주소 : Olga Cossettini 831, Piso 2 (1107), Puerto Madero, C.A.B.A, Argentina
- 전화/팩스 : (54-11) 4312-0033/ (54-11) 4312-7755
- 대표 E-mail : kotra@kotra.org.ar
- 홈페이지 : kotra.or.kr/buenosaires/index.do

☐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 주소 : Av. del Libertador 2395 (C.P.1425), Capital, Buenos Aires
- 전화 : (54-11) 4802-9665, 8062, 8865, 0923 / 4806-6796(영사과)
- 팩스 : (54-11) 4803-6993
-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ar-ko/index.do?7420>

☐ 주요 항공사 연락처

항공사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Aerolineas Argentinas	Bouchard 547 Piso 8	4130-3000
Air Canada	Av. Cordoba 656	4327-3640/44
Air France	San Martin 344 Piso 23	4317-4700
American Airlines	Av. Santa Fe 881	4318-1111
Latam	Av. Corrientes 336	5032-0184
Gol Aereas	Cerrito 1134	4815-4035
Lufthansa	M.T. de Alvear 590 Piso 6	4319-0600
KLM	Ing. Enrique Butty 240	4317-4700
Mexicana	Av. Cordoba 1131	4136-4101/05/36
United Airlenes	Av. E. Madero 900 Piso 9	4316-0777

2. 체류 유의사항

○ 기후 및 의복

-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정반대에 위치, 계절이 정반대로 의복도 한국과 반대로 준비 필요 (12~1월 여름, 7~9월 겨울)
-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 지역은 사계절이 있으나 겨울철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음

○ 치안상태

- '01년 말부터 경제 파탄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와 실업증가로 은행 및 슈퍼마켓 강도, 몸값을 받기 위한 납치, 살해 등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외출 시 주변안전에 주의가 필요
- 특히 택시강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가급적 단체로 이동

○ 강도 사례 및 사고 예방 방법

- 고가 핸드폰이나 카메라 등의 전자제품, 고가 시계 등을 소지품을 갖고 이동하는 행인 대상으로 강도들이 2~3명이 완력으로 물건을 뺏어 도주함
-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혼자 있는 관광객 대상으로 2인조 이상의 강도 중 한 사람이 악취가 나는 이물질(옷이나 가방)을 몰래 뿌리고 이를 우연히 발견하여 도움을 주는 것처럼 속여 특정 가방을 벗을 것을 권유한 후 가방을 탈취하거나 특정 장소로 유인하여 강탈
- 따라서, 도보로 이동시에는 항상 고가 소지품은 호텔에 두고 현금도 필요한 만큼만 소지하여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혼자 이동 중인 사람의 경우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항상 단체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량보유자의 경우, 눈에 보이는 위치에 핸드백이나 고가품을 올려놓고 운전할 경우 오토바이 강도가 창문을 파손하여 소지품을 갈취하는 경우 발생
- 또한, 관리자 없이 주차된 차량의 경우도 네비게이션이나 귀중품이 눈에 보일 경우 창문을 파손하고 물품을 갈취하는 사례도 흔히 발생함
- 따라서 주행 차량의 경우 소지품을 의자 밑에 두고, 주차 시에 귀중품은 트렁크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통

- 택시는 기본요금 144페소, 200미터 당 14.4페소씩 추가
심야(22시~6시) 174페소, 200미터 당 17.4페소씩 추가 (20% 할증)
- 빈 택시는 앞 유리창 쪽에 Libre라는 빨간색 바탕화면에 하얀색 불이 들어옴
- 택시를 탈 땐 항상 택시 번호와 좌석에 붙어있는 택시기사 정보와 택시기사

- 얼굴을 확인. 목적지의 경로(길-avenida-이름; 대체로 큰 길을 말함)를 알고 있을 시에는 바가지요금을 피할 수 있음
- www.viajoentaxi.com.ar 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 후 대략의 요금을 확인 가능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지원)
- 지하철(Subte)은 6호선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방사선형으로 도심에서만 환승 가능하며 심야에는 치안이 다소 불안
- A~E선, H선, P선이 있으며 계속 확장 중
- 운행 시간

		월 -금		토요일		일요일 및 휴일	
		첫차	막차	첫차	막차	첫차	막차
A	San Pedrito	05:30	23:00	06:00	23:30	08:00	22:08
	Pza. de Mayo - Casa Rosada	05:30	23:28	06:00	23:58	08:00	22:36
B	J. M. Rosas - V. Urquiza	05:30	23:00	06:00	23:22	08:00	22:00
	Leandro N. Alem	05:30	23:30	06:00	23:53	08:00	22:28
C	Constitución	05:30	23:19	06:00	23:40	08:00	22:21
	Retiro	05:30	23:33	06:00	23:54	08:00	22:34
D	Congreso de Tucumán	05:30	23:00	06:00	23:24	08:00	22:00
	Catedral	05:30	23:27	06:00	23:52	08:00	22:28
E	Pza. de los Virreyes - E. Perón	05:30	22:56	06:00	23:26	08:00	21:56
	Retiro	05:30	23:30	06:00	23:58	08:00	22:28
H	Hospitales	05:30	23:51	06:00	00:20	08:00	22:51
	Fac. de Derecho - J. Lanteri	05:30	23:30	06:00	23:59	08:00	22:29
P	Intendente Sagüier	05:30	21:00	06:00	21:07	08:00	21:00
	Centro Cívico	06:03	21:33	06:31	21:38	08:32	21:32
P	Intendente Sagüier	05:39	20:50	06:11	20:55	08:13	20:47
	General Savio	06:13	21:23	06:43	21:27	08:45	21:19

- 버스(Colectivo)의 경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 약 200개의 노선이 존재하며 2014년 1월 1일 이후로 SUBE 카드로만(한국처럼 교통카드 시스템이 있음) 계산 가능. 기본요금은 47 페소임
-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버스 시스템을 도입해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매우 흡사함. moovit 어플에서 시내/시외버스 노선을 편히 알 수 있음
- 레미스(Remis)는 일반승용차이나 콜택시 형태로 운행되는 합법영업 교통수단. 총 합산 거리로 요금을 받아, 차가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 용이
- 어플로 이용하는 Uber, Cabify, Didi 모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이용시 편리하게 사용 가능. 또한, 외국카드로 결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화폐

화폐 단위 및 사진			
단위	사진	단위	사진
5센타보		2페소	
10센타보		5페소	
25센타보		10페소	
50센타보		20페소	
1페소		50페소	
2페소		100페소	
100페소(신권)		500페소	
200페소		1000페소	

○ 결제수단 및 환전

- 공식환율 : U\$1= 914 페소 ('23년 5월 기준)
- 비공식환율 : U\$1= 1,215 페소 ('24년 5월 기준)
- 당일 시세는 www.dolarhoy.com 에서 확인 가능함.
- 페소 이외에 달러화도 일부 통용되고 있으나, 호텔이나 쇼핑센터 이외에 달러가 통용되지 않으므로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환전 후 사용
 - * 쇼핑 상가 내 물품 구입 시 달러화 지불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 결제수단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가능하나, 한국식당 및 한국 선물가게 등은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불가

○ 전화 사용방법

- 국내 및 국제통화는 원활한 편이나 호텔 내 국제전화요금은 높은 수준임
- 현지 국제전화 카드 사용 시 요금 대폭 절감
- 호텔 객실 내 국제전화 카드 사용 시 연결료로 통화 당 U\$ 3 ~ 4을 청구하는 호텔이 많음

< 전화 사용 방법 >

국제전화	부에노스아이레스 → 한국	일반전화	00-82-지역번호-전화번호
		휴 대 폰	00-82-11/10-전화번호
		수신자부담	0800 8888 411
	한국 →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전화	001(또는 002)-54-11-전화번호
국내전화	시내통화 (부에노스아이레스)	휴 대 폰	001(또는 002)-54-911-전화번호
		일반전화	전화번호
		휴 대 폰	15-전화번호
	시외통화	일반전화	지역번호 + 전화번호
		휴 대 폰	지역번호 + 15 +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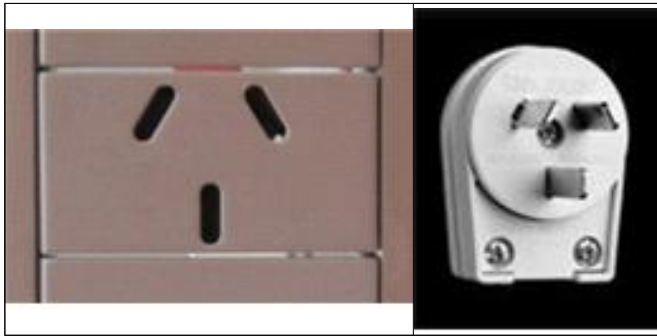
○ 주요도시 지역번호

- Buenos Aires 011, Bariloche 02944, Calafate 02902, La Plata 0221, Mar del Plata 0223, Cordoba 03547, Mendoza 0261, Neuquen 0229, San Juan 0264, Rosario(Santa Fe) 0341
- 휴대폰의 경우 로밍 서비스를 통해 현지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현지에서 저렴한 휴대폰 혹은 유심 칩을 새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보편적
- 대표적인 무선통신 회사로는 모비스타(Movistar), 페르소날(Personal), 클라로(Claro) 등 3개사가 있으며, 유심 칩(약 100페소)만 구매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8년 5월부터 영주권 번호를 추가 기입하여 등록 필요

○ 식수

- 가급적 미네랄워터를 호텔 또는 슈퍼에서 구입하여 음용
- 식수는 일반수인 Agua sin gas와 소다수인 Agua con gas가 있음

○ 전압, 주파수, 비디오방식



- 220V, 50Hz, (콘센트는 3 Knife형)
- 비디오 방식은 PAL-N방식(한국은 NTSC방식)

○ 팁 문화

- 호텔 : 침대 베개위에 1 달러(또는 100~200페소)정도 놓고 나오며, 포터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1달러(또는 100~200페소)주면 되나, 가방수가 많을 경우 1달러 정도를 더 지불
- 현지 식당 : 음식 값의 다과에 따라 5-10%를 팁으로 지불, 대부분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팁 지불이 가능하나 간혹 한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읽지 못할 때가 있어 현찰 준비 필요

○ 아르헨티나 교민사회

- 한국교민은 이민역사 54년에 약 3만명 내외
 - * '98년 3만5천명에 달했으나 경제위기 심화로 대폭 감소
- 교민의 8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80%에 달하는 교민이 의류 생산·판매업에 종사하여 현지 의류시장 장악
 - * 주요상권 : 온세(Once), 플로레스 (Flores, 통상적으로 Avellaneda지역으로 통합)
- 한인 타운 (일명 : 백구촌)
 - * 까라보보(Carabobo)와 까스파냐레스(Castaños) 거리 중심으로 한인 타운 형성(교회, 슈퍼, 식당 등 운영)
 - ** 시내 중심의 호텔에서 택시로 40분 소요
- 한인회 및 50여개의 단체
 - * 교회 : 40여개
 - ** 학교 : 한국학교 초등학교 과정 운영 (ICA)

3. 주요 식당

- 한식당을 제외하고 현지 식당은 대부분 20시 이후에 영업을 시작함. 따라서 20시 이전에 현지식당에 갈 경우에는 전화로 영업여부를 확인하고 가야 함
- 한식당
 - 약 120여개 되는 한식당이 있음
 - 시내에 소재한 비원과 파송송, Mr. Ho를 제외하고는 시내에서 택시로 40분 정도 소요되는 한인 타운(일명 ‘백구촌’과 ‘아베’ 2곳)에 위치
 - 가장 보편적인 메뉴는 한정식이며, 가격은 대략 10-20불 가량임.

식당명	주 소	전 화	비 고
비 원	Junin 548	4372-1146	한정식
한국관	Saraza 2135	4632-8139	한정식
Ichiban	Felipe Vallese 3153	4611-6631	일식
경미정	Pumacahua 730	4631-1648	숯불구이 전문
밥(Bab)	Felipe Vallese 3132	4612-4828	한정식, 삼겹살
수 라	Paez 3361	4671-3091	한정식, 아사도
늘 봄	Bacacay 3236	4612-4911	탕, 전골, 생선구이 등
미 도	San Nicolas 513	4672-0005	한국식 일식집
더큰집	Felipe Vallese 3209	4612-1385	한정식, 삼겹살
유가네	Paez 3063	4611-2580	한정식, 삼겹살
구이가	Moron 3155	4637-1200	삼겹살, 전골
향가	Carabobo 1549	4631-8852	보쌈, 삼계탕 등
대원정	Av.Gaona 3979	2006-7124	한정식
파송송	Esmeralda 993	3506-1258	분식
Mr. Ho	Paraguay 884	6560-1004	한식

- 현지식당
 - 아르헨티나의 주요음식은 아사도(asado)와 빠리야다(parillada)로 주요식당은 주로 푸에르토 마데로(Puerto Madero)와 국내공항 근처인 꼬스파네라 지역에 있음 (시내에서 10~15분 거리)

식당명	주 소	전 화	비 고
Las Lilas	Alicia Moreau de Justo 516	4313-1336	아사도 전문
Happening	Alicia Moreau de Justo 310	4319-8715	"
Rodizio	Av.Alicia Moreau de Justo 838	4334-3638	"
Spettus	Alicia Moreau de Justo 876	4334-4126	"
Le Grill	Av.Alicia Moreau de Justo 87	4331-0454	"
Piegari	Posadas 1042	4326-9430	이탈리아식
Irifune	Paraguay 412	4312-8787	일식
Marcelo	Av.Alicia Moreau de Justo 1140	4342-8689	이탈리아식

4. 현지 관광

□ 탱고쇼

- 탱고 쇼는 대부분 2부로 나뉘져 있음. 1부(20:00 ~ 22:00)는 저녁식사이고, 2부(22:00 ~ 24:00)는 탱고 쇼임
- 입장료는 탱고쇼 관람 시 50불, 저녁포함 시 80불 내외



▲주요 극장 분위기



▲탱고쇼 장면

탱고장	주 소	전 화	비 고
Carlos Gardel	Carlos Gardel 3200 (중심가)	4867-6363	- 1시간 30분 공연
La Ventana	Balcarce 431 (시내 중심가)	4331-8689	- 규모가 다소 작음 - 1시간 탱고쇼, 1시간 민속쇼
Señor Tango	H. Vieytes 1655 (Boca 지역)	4303-0231	- 규모가 비교적 큼 - 2시간 탱고쇼 공연
Tango Porteño	Cerrito 570 (시내 중심가)	4124-9400	- 극장식 탱고쇼 - 1시간 30분 공연
Cafe del angelito	Av.Rivadavia 2100 (시내 중심가)	4952-2320	- 극장식 탱고쇼 - 1시간 디너, 1시 30분 공연

□ 주요 명소

○ 대통령궁 (Casa Rosada)



- 스페인 로코코풍의 건물로 1873년부터 1894년까지 건설
- 역대 대통령의 공식행사 및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사르미엔토 대통령부터 분홍색을 칠해 왔기 때문에 'Casa Rosada' (분홍색 집)으로 불림.
- 영국 침략군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요새로 사용
- 대통령궁 앞에는 5월 혁명(독립운동)의 발상지인 5월 광장(Plaza de Mayo)이 위치해 있음.

○ 국회 의사당 (Congreso Nacional)



- 민주주의와 입법권을 상징하는 그레코로만 양식의 위엄 있는 건물
- 이탈리아인 빅토르 메아노(Victor Meano)에 의해 디자인되어 1897년에 건축을 시작, 1906년에 완공됨
- 5월 대로를 통하여 대통령궁(Casa Rosada)과 연결
- 광장에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복제품, 기념비와 분수대가 있어 일반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으며, 5월 광장과 더불어 정치 집회가 많은 곳임

○ 7월 9일 대로 (Avenida 9 de Julio)



-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로
- 세계에서 도로 폭(140m)이 제일 넓은 것으로 알려짐
- 이 도로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건립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36년에 세워진 오벨리스크 탑이 있음

○ 콜론 극장 (Teatro Colon)



- 남미 최고 예술의 전당으로 1908년 건설
- 밀라노의 스칼라극장, 파리의 오페라극장과 함께 세계 3대 극장으로 꼽힘
- 입장 정원은 2,700명(입석까지 최대 4,000명)이며, 세계적으로 유망한 음악·발레 등이 공연

○ 국립미술관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 중근세 유럽 유명작가와 아르헨티나 일류작가의 작품이 전시
- 엘 그레코, 모네, 고갱, 고흐 등 작품 보유
- 면적 9,750㎡의 2층 박물관으로 1만여 점의 작품 소장

○ 레콜레타 묘지 (Cementerio de la Recoleta)



- 1882년 사방 150m 규모로 개설된 유서가 깊은 묘지
- 예술적 우수성으로 70 여개의 묘는 국가문화재로 지정
- 역대 대통령 13인의 묘를 비롯한 유명인의 묘가 다수
- 페론 전 대통령 영부인(에비타) 묘지는 외국인의 관광명소임
- * 에비타로 불린 마리아 에바 두아르테 데 페론 영부인은 사생아로 태어나 불행한 소녀시절을 보냈지만 여배우가 되고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었음. 미모와 영화 같은 인생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33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

○ 라 보카 (La Boca)



- 아르헨티나 탱고(Tango)의 발생지로 알려지고 있음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남동쪽에 있는 항구 지역
- 유럽에서 아르헨티나에 최초로 이민 온 사람들의 정착지
- 아르헨티나 유명 축구 구단인 Boca Juniors의 주경기장 La Bombonera 소재

○ 플로리다 거리 (Calle Florida)



- 산 마르틴 광장에서 5월 대로와 만나는 곳까지의 약 1 km의 상가 거리
- 부티크, 레스토랑, 갤러리, 서점 등이 밀집되어 있음
-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항상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붐비고 있음
- 기념품 구매, 환전, 쇼핑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음

○ 산 마르틴 광장 (Plaza San Martin)



- 아르헨티나에서 독립운동을 일으켜 페루, 칠레의 독립을 실현시킨 '자유의 아버지'로 숭배되는 San Martin 장군 기념비(동상)가 있는 광장
- 주요 행사시 이 기념비에 헌화를 함

참고자료 1 : 아르헨티나 바이어 상담 유의사항

□ 비즈니스 에티켓

○ 약속

-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반기/분기별 출장일정을 미리 계획하기 때문에 사전에 면담 가능 여부를 문의
- 최소한 2주전에 레터로 방문신청을 하고 방문 며칠 전 재확인 필요

○ 식사

- 아르헨티나인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 금기시되는 음식은 없으나 매운 음식, 생선류(회 포함), 국물 있는 음식 등은 대부분 선호하지 않음
- 스테이크,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음식이면 무난하고 저녁식사 시 포도주는 주문하는 것이 대부분 좋음.
- 최근 일본 ‘스시’가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으나 호불호가 심한 편으로 식사 대접에는 비적합
- 한국에서 아르헨티나 인을 초대할 때는 의자가 있는 식당이 적합 아르헨티나인은 양반다리를 해야 하는 식당은 매우 불편해하며 무릎을 꿇고 식사하는 경우가 많음

○ 선물

- 아르헨티나인은 비즈니스 상담에서 초면에 선물을 교환하지 않음
선물을 할 경우는 한국적 이미지가 있는 열쇠 고리 등 가벼운 선물을 추천
- 바이어 관리를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생일 등에 문자 혹은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추천되고, 연말에는 주요 거래 선에는 와인, 종합 선물세트 등을 선물
- 7월 20일은 ‘친구의 날’로, 이때 아르헨티나 기업인에게 이메일로 안부를 묻는 것이 좋음

○ 인사

- 아르헨티나 현지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친한 사이인 경우 가볍게 포옹하고 오른쪽 볼을 맞대는 ‘운 베시토 (un besito)’ 인사법이 일반적
- 그러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간단한 안수나 주먹을 마주대는 인사법을 대부분 사용

○ 명함과 호칭

- 비즈니스 면담의 경우 상대방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나, 친해지면 호칭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많음. 호칭을 부를 때 성명을 보고 성(姓)과 이름(名)을 구분 필요
- 아르헨티나인의 성명은 보통 2개 내지 3개로 되어 있는데 스페인과 달리 모성(母姓)은 쓰지 않음

- ① 성(姓) 앞에 직위를 붙여 호칭할 수 있다. 직위는 회사에 따라 달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프레지덴테(Presidente)는 사장, 디렉토르 헤네랄(Director General)은 사장 또는 이사, 디렉토르(Director)는 이사 또는 부장, 헤렌테(Gerente)는 과장 정도이다.
- ② 남성에게 세뇨르(Señor), 기혼여성에게 세뇨라(Señora), 미혼여성에게 세뇨리따(Señorita)를 성(姓) 앞에 붙인다.
- ③ 명함을 보면 성(姓) 앞에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이름 앞에 학력을 붙이면 훌륭한 존칭이 된다. 박사는 독토르(Dr. ; doctor), 석사는 리센시아도(Lic ; licenciado), 공학 석사는 인헤니에로(Ing. ; ingeniero)로 표기한다. (예 : 리센시아도 로페스 licenciado Lopez)

○ 복장

-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매너를 중시하므로 정장 착용이 바람직
- 대부분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하면 무난하며, 넥타이는 원색보다는 부드러운 중색을 추천

■ 바이어 대면 상담·거래 시 유의사항

○ 첫 대면에 자연스런 이야기 주제

- 비즈니스 상담은 먼저 축구*, 날씨 등을 화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음
 - * 아르헨티나인은 축구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이 매우 강한 편으로 한국에서도 아르헨티나 축구에 대한 명성이 자자하다고 은근히 치켜 세워주는 화법이 필요
-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좋은 공기’ 라는 의미)라는 도시 이름처럼 아르헨티나는 공기가 상쾌하다고 언급하는 등 현지 날씨에 대한 칭찬, 탱고, 마떼(mate) 등도 가벼운 화제로 사용 가능

○ 바이어 출신국가로 성향 파악 가능

- 아르헨티나는 ‘유럽계 이민 국가’이다. 1차 세계대전 전후에 정치·경제·종교적인 이유로 이민한 이탈리아·스페인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아랍국가 후손도 많은 편

- 현재 인구 약 4,500만 명 중 90% 이상이 유럽계 이민 후손으로 ‘유럽인이라는 자존심’이 강한 편
- 최근에는 볼리비아,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인근 국으로 부터 저임 노동력 유입이 많고, 중국(7만명), 대만(2만명) 등 아시아계 이민도 증가 추세
- 아르헨티나인은 출신국에 따라 업종이 전문화되어 있고 상관습도 다름 스페인, 이탈리아계는 첫 이민세대인 만큼 산업 전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 국가 출신은 특정업종에 전문화
 - * 예컨대, 총 3만 명 내외의 한국인의 경우는 봉제업과 의류 도소매업에 교민의 8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종사 중
- 출신 국가별로 상담 스타일도 다른데 스페인·이탈리아계 바이어는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Si(yes)’는 계약 또는 주문을 의미하지 않음
 - * 무역관 경험으로 볼 때 꼼꼼한 바이어일수록 계약가능성이 높으며, 중동계 바이어는 ‘가격(비용)이 머리에 있다(costos en la cabeza)’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출신국가별 종사 업종 현황 >

- 스페인 : 이탈리아 : 아르헨티나 제조, 유통 등 전 업종에 진출
- 유태인 : 식물 수입 및 유통, 라디오, TV 등 언론, 부동산
- 아 랍 : 신발, 피혁산업
- 중 국 : 200m² 이하 슈퍼마켓 및 액세서리 소매점
- 볼리비아 : 봉제
- 일 본 : 화훼, 세탁소
- 한 국 : 봉제, 의류 도소매업

○ 바이어 기질 : 유럽인이라는 자존심과 보수성

-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후손으로 남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유럽인이라는 자존심이 강한 편
 - *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남미의 파리’, 바릴로체를 ‘남미의 스위스’ 등으로 언급
- 보수적 성향의 바이어가 많아 신규 거래 개발이 어렵지만 한 번 거래를 시작하여 좋은 인상을 주면 다른 경쟁사가 뚫고 들어오기도 어려운 긍정적 측면도 존재
-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 공급선 위주로 거래를 오래 해오고 있어 한국, 일본 등 아시아계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은 국가
- 그러나 최근 중국을 필두로 일본, 한국 등 신규 거래선 발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수입관행

- 현지 경기 상황에 평가절하로 경제 환경이 어려워져 소비자 구매력 감소 탓에 가격을 중시하는 바이어가 증가
- 또한 가격 면에서 중국산과 비교하는 경향이 심한 편
- 거래조건은 T/T & CAD가 일반적*
 - *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전통 관행상 외상거래를 고집해오다 디폴트 이후 대부분 현금, L/C 거래에 응해왔으나, 최근에는 T/T로 선금 20~30%, 나머지는 CAD(COD)로 결제하는 경우가 일반적
 - * 최근 외환규제가 심화되며 T/T가 불가능해지자 L/C 거래로 변경하는 경우도 대다수
- 거래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D/A, D/P를 요구.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현지 경기 상황 악화로 수출보험공사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신용장을 개설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현지 상관행상 꼭 'Contract Sheet'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Proforma Invoice로 대체 가능
- Proforma Invoice에 바이어의 Counter Sign을 받아서 계약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Claim 발생 시 해결 방법 등을 명기하는 것을 추천
- 제반 선적서류 작성에 대해 바이어가 계약시 간과 할 수도 있으니 서류 작성 시 반드시 바이어에게 확인 하는 것이 좋음
- 아르헨티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세관 등에서 그때그때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 및 영사확인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언더밸류를 방지하기 위해 price list 등에 영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선적서류 미비로 인한 통관 지연 시 비용 발생이 크므로 보상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 현지 세관 규정상 선박 도착 후 5일 이내에 통관이 안 되면 창고비용이 발생
- 간혹 바이어가 실제 수입 의도가 없으면서 업체에게 공급조건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특히 주의할 것은 현지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서면 기재하는 것은 좋지 않음*
 - * 과거에 국내 모 자동차 배터리 업체의 대리인이 현지 바이어에게 "필요하면 언더밸류를 해 줄 수 있음" 이라고 기재한 것이 현지 메이커를 통해 언론에 공표되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음
- 문제 발생 시 현지 바이어는 자사에 유리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 업체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존재함.
- 바이어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자료, 정보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제공

참고자료 2 : 아르헨티나 바이어 접촉 가이드

□ 거래 제의시 우선 이메일로 가볍게 접촉

- 아르헨티나 바이어에게 거래 제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우송하기 이전에 우선 이메일로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
 - 이때 바이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바이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회사·제품·홈페이지 등의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
 - * 무역관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면 현지 활동명인 'KOTRA - Oficina Comerical de la Embajada de Corea (KOTRA - Commercial Section of Korean Embassy)로 기재
- 바이어와 몇 차례의 교신 후 상호 인지도 및 거래관심도가 어느 정도 제고되었을 때 회사 소개서·카탈로그·가격표 등을 메일로 송부하고, 가능하면 샘플을 송부하는 것이 효과적
 - 대부분의 현지 바이어가 샘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심도 파악 후 송부시 오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검토 결과 문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

- 구체적인 거래 관련 자료를 특사배달 등으로 송부한 경우 자료 수령일 예상일에서 대략 1주일의 지난 뒤에는 자료의 수령여부 확인과 아울러 검토결과를 문의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필요
- 거래 관련 자료의 검토결과를 문의할 때에 먼저 이메일로 문의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 전화통화시 유의할 사항

- 국제전화 고비용으로 기피
 - 일반전화 보다는 화상상담 예약이나 왓츠앱 등을 통한 전화를 선호
- 담당자와 통화 시 인내 필요
 - 아르헨티나 바이어 담당자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
 - 미리 시간을 맞춘 뒤 전화를 하는 방향이나, 비서를 통해 한가한 시간에 연락하는 것을 추천

- 재촉하는 인상을 주지 말 것
 - 아르헨티나 바이어는 업무를 빨리 진행하는 스타일은 아님.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는 타입으로 재촉하는 느낌을 주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
 - 이럴 경우에는 매일 전화를 함으로써 조급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 보다는 시간을 두고 2일 혹은 3일의 간격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것 필요
- 바이어로부터 무 회신에도 지속적인 연락 필요
 - 아르헨티나 인들과 거래할 때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 곧바로 회신하고 답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락을 하는 것이 좋음

■ 사용언어 및 연락시간대

- 바이어 80%가 영어를 구사
 - 무역관이 접촉한 경험으로는 수입상 중 80% 내외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 거래 진행에 어려움이 없음
 - 그러나 화상상담 진행 시 발음 차이로 간혹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한-서 동시통역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
- 시차를 고려해 바이어와 현지 오전시간대에 연락 (한국과 -12시간 시차)
 - 대부분의 담당자는 오전에 잠깐 회의를 가진 후 12시까지는 사무실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음
 - 무역관의 경험으로도 오전시간에 담당자와의 연결 확률이 오후시간보다 높음
-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메일 사용 추천
 - 시차, 언어, 환경문제로 전화, 팩스보다는 이메일이 바람직
 - 이메일은 영어로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